

사회로 통하는 지름길 제대군인 지원센터

- 취·창업지원** 1:1 전담상담사 배정 맞춤형 상담 서비스, 전직지원금 지원
채용정보 제공 및 취업알선, 이력서·면접 클리닉 등
- 워크숍** 취업역량강화, 변화관리, 특강, 창업워크숍 등
- 직업훈련** 위탁교육, 직업능력개발교육비 지원, 귀농귀촌 프로그램 등
- 사이버 교육** 자격증 취득 관련 등 취·창업에 필요한 강좌 제공
- 멘토링 상담** 성공 제대군인 멘토 온·오프라인 실전 경험 전수



제대군인지원센터로 오십시오.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라 5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 준사관, 부사관으로 전역했다면 누구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www.vnet.go.kr) 회원가입 필수

경기북부 제대군인지원센터
경기 의정부시 시민로 80, 1103호
(의정부동, 센트럴타워)

인천 제대군인지원센터
인천 미추홀구 석정로 239, 1층
(도화동, 정부인천지방합동청사)

경기남부 제대군인지원센터
경기 수원시 장안구 조원로 8, 별관 2층
(영화동, 경기남부보훈지청)

광주 제대군인지원센터
광주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 1층
(오룡동,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서울 제대군인지원센터
서울 서초구 방배로 73, 3층
(방배동, 양지빌딩)

강원 제대군인지원센터
강원 춘천시 소양강로 10, 915호
(후평동, 춘천B&I지식산업센터)

대전 제대군인지원센터
대전 서구 한밭대로 713, 5층
(월평동, 대전지방보훈청)

대구 제대군인지원센터
대구 달서구 화암로 301, 저층부 3층
(대곡동,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

부산 제대군인지원센터
부산 중구 중앙대로148번길 13, 4층
(중앙동4가, 부산지방보훈청)

경남 제대군인지원센터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305, 2층
(서성동, KT서성빌딩)

군인친구
1666-9279
전국 10개 센터 대표번호

리:스펙 제대군인 2023 December Vol.214

리:스펙 제대군인

12 Vol.214
2023 December

만개

인생 제2장
서막이 활짝

생각한 스펀
청년의 꿈이
만개하다

슬기로운 직장생활
인생 이모작을 위한
직장인 커리어 관리



QR코드를 통해
리:스펙 제대군인 웹진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투씨(주) 캠프닉장 운영
예비역 육군 중령 서경규

Full bloom

만개(滿開)

인생 제2장 서막이 활짝

새롭게 펼쳐진 꿈의 무대,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무엇을 꿈꾸든, 무엇을 펼치든, 창공을 가르는 꿈, 자유를 향한 비상(飛上). 당신은 언젠가 꿈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꽃 같은 청춘, 내 나라 내 조국 위해 온 몸과 맘을 바치겠노라' 마음속 새긴 굳은 맹세는 오늘도 빛나고 있습니다.

그 꿈의 씨앗이 새로운 싹을 틔우고, 이제는 새로운 발화, 내일의 만개를 기약합니다. 만개한다는 건 거룩한 일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강인한 의지로 새 생명을 품고 있기 때문이지요. 온 세상을 밝히는 알록달록 고운 꽃들,

온 산을 뒤덮은 새하얀 눈꽃들. 사람들 얼굴에 활짝 피는 웃음꽃... 그것이 아름다운 건 도전하는 용기와 인내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꿈을 향한 제2의 인생, 활짝 꽃피울 그날을 위해 오늘도 달리는 당신의 열정이 아름답습니다.

리스펙 투 유, 리스펙 포 유.



리:스펙 제대군인

12 Vol.214
2023 December

만개


인생 제2장
서막이 활짝

통권 214호
발행일 2023년 12월 1일
발행처 국가보훈부
발행인 박민식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기획 국가보훈부 제대군인국
제대군인일자리과(044-202-5731)
기획·디자인·인쇄 동아문화사(053-252-9060)
발간등록번호 11-1830000-000002-06

 www.facebook.com/mpvakorea
 twitter.com/hun2day

 www.youtube.com/user/mpvakorea
 blog.naver.com/mpvalove

 www.instagram.com/bohun_story

 QR코드를 통해 <리:스펙 제대군인> 웹진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리:스펙 제대군인>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www.mpva.go.kr), 제대군인지원센터 홈페이지(www.vnet.go.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08

Find 業 VISION

02
테마읽기
만개(滿開)
인생 제2장 서막이 활짝

06
생각 한 스펀
청년의 꿈이 만개하다
___ 한재동 브랜드 전문 에디터 / 마케터

08
라이프 체인저
산소 같은 바닷가에서 모래를 만지다
캠핑+피크닉= 캠프닉의 세계
___ 서경규 예비역 육군 중령

12
함께 그려본 내일
안전한 공항을 보증하는 보안회사
각 잡힌 부드러움
___ 인천국제공항보안(주)

16
이런 직업 처음이지?
오늘부터 '갯생' 살기!
자기개발을 돕는 직업들



12

Find 業 LIFE

18
직업처방전
건설현장 전기통신소방 안전팀장
주경야독 군인정신으로 마침내 안전을 지키다
___ 이주석 예비역 육군 중령

22
기업이 알고 싶다
크리에이터들과 함께 성장하는
커머스 플랫폼
___ 핸드허그

24
굿 JOB 굿 LIFE
로봇 태권브이의 비상을 꿈꾸며
___ 손건희 예비역 육군 소령

26
슬기로운 직장생활
인생 이모작을 위한
직장인 커리어 관리

28
성공 길라잡이
제대군인 취·창업 지원 절차



18

Find 業 HAPPINESS

30
금쪽상담소
게으른 완벽주의자, 목표를 이룰 수 있을까요?
___ 박민선 『아주 작은 시작의 힘』 저자

32
접속! 직업월드
부드러운 미소에 총명한 눈빛
비서부터 드라마 제작사 마케터까지
___ 배우 공명

34
차이나는 클래스
다가올 2024년, 그보다 빛나는 당신의 눈동자에 건배...
연말 파티를 위한 애플리케이션

36
힐링온더트립
연말을 특별하게 장식하는 근사한 여정, 울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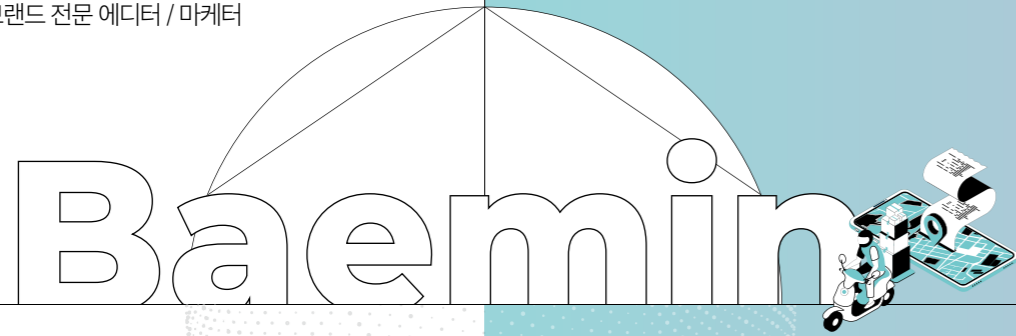
40
나의 군대일지
장갑은 장갑인데 손이 꿈꿈
___ 김건우 예비역 육군 소령

42
해피투게더
나의 작은 이끼 정원, 테라리엄 만들기

#배달의 민족
#마켓컬리

청년의 꿈이 만개하다

글 한재동 브랜드 전문 에디터 / 마케터



현재 국내의 스타트업 수는 대략 300만 개라고 합니다. 그중 성공을 거두었다고 하는 유니콘(기업가치가 1조 원 이상인 비공개 스타트업)으로 성장한 기업은 22개,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기보다 어렵다'라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가능성이 작아요. 이번 호에는 그 가능성을 이겨내고 만개해서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이 된 '배달의 민족'과 '마켓컬리'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외식업계의 지각변동을 일으킨 푸드테크 기업 배달의 민족

배달의 민족(이하 '배민')은 2011년 창업자 김봉진 대표가 만든 앱입니다. 배민은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스스로를 "주변의 배달 정보를 쉽게 찾아주는 앱"이라고 소개했어요. 거기에 결제와 다양한 사업이 확장되며 현재 배민은 배달 플랫폼의 압도적 1위를 하고 있습니다. 2011년에 누적 다운로드 200만 건을 돌파했고, 2014년 누적 다운로드 1,000만 건과 월간 주문 수 500만 건 돌파, 2016년에는 연간 거래액 1조 원을 이루어 냈습니다. 2019년에는 기업가치 4조 7,500억 원을 인정받고 글로벌 배달 서비스 DH에 인수되어요.

업계에서는 배민을 스타트업으로 시작해 유니콘 기업을 거쳐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한국 스타트업 최고의 성공 사례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IT 기업 디자이너 출신인 김봉진 대표가 출시 초기 경쟁 앱과의 차별화를 위해 직접 전단을 모으고 영업을 뛰어 6개월 만에 음식점 5만 건의 정보를 모은 일화는 유명합니다.

디자이너 출신 창업자의 안목으로 배민은 굉장히 독특한 방식의 브랜드 마케팅을 펼쳤습니다. 업계 최초로 TV CF를 제작했는데,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라는 B급 감성의 키치한 광고로 지금까지 회자될 정도로 이슈가 돼요. 그 외에도 독특한 잡지 광고, 배민 자체 서체 제작 및 배포, '배민 신춘문예'를 통해 기발한 광고 문구 제작에 고객이 참여하는 이벤트도 화제가 됩니다.



배달의 민족 김봉진 대표 - 출처 중앙일보

이런 시도들이 모여 배민은 압도적 점유율이라는 결과를 이루어냅니다. 시장의 선도자가 되자 수수료 논란이 일었을 때 수수료를 폐지하는 등 시장 구조를 바꾸는 역할도 하게 돼요. 이제 배민은 배달을 원하는 고객만이 아닌, 외식업계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교육과 다양한 솔루션 제공 등 업계 전반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고객이 배민에서 음식을 주문하면 '배민 페이'로 결제하고 소상공인은 '배민 상회'로 주문을 관리해요. '배민 라이더스'가 음식을 배달하고 '배민 장부'를 통해 정산한 뒤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배민 아카데미'에서 경영 컨설팅을 받습니다. 2019년 베트남을 시작으로 배민은 아시아 전역으로 해외 진출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전단을 모으며 발로 뛰던 청년의 꿈이 이제는 글로벌 푸드테크 기업으로 성장한 것이죠.

불편함을 해결하려 만들었더니 유니콘이 되었다 마켓컬리

마켓컬리는 불편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창업자인 김슬아 대표는 맛벌이 부부가 신선한 식자재를 온라인에서 구매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했어요. 며칠간의 배송기간 동안 채소가 시들어 버리거나, 배송 시간이 필요할 때에 맞추기도 너무 어렵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새벽에 배송해 두면 아침에 눈 뜨자마자 받아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바로 마켓컬리의 새벽 배송입니다. 중간 유통단계 없이 생산지에서 24시간 이내 새벽에 배송을 해주는 서비스예요. 처음에는 이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기에, 사기 아니냐고 전화를 걸어 확인하는 고객이 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2015년 수도권을 중심으로 출시된 서비스는 1년 만에 가입자 10만 명에 매출 20억 원을 달성해요. 이용자 간 입소문이 퍼지면서 더욱 빠르게 사업이 확장됩니다.



마켓컬리 김슬아 대표 - 출처 중앙일보

김슬아 대표는 알아주는 미식가라고 해요. 그것은 그녀가 마켓컬리의 'MD 헤드'로 좋은 식자재를 고집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마켓컬리에는 좋은 상품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상품위원회'라는 시스템이 있어요. 모든 상품에 대한 내부 검증 절차로 김 대표를 주축으로 각종 전문가를 초빙해 상품의 최종 입점이 결정됩니다. 이런 철저한 제품 관리로 마켓컬리는 거의 팬덤에 가까운 충성고객들을 얻게 돼요.

마켓컬리는 초기에 마케팅에 예산을 투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고객들이 나서서 마켓컬리에서 구매한 제품을 홍보하고 서비스를 칭찬했습니다. 마켓컬리는 브랜드 컬러인 보라색을 중심으로 입점한 식재료를 세련된 느낌의 콘텐츠로 제작했어요. 당시 식자재는 유기농과 건강함 위주의 콘텐츠였는데, 마켓컬리의 세련된 콘텐츠는 새로운 방식으로 화제가 됩니다. 그리고 전지현이라는 대형 모델을 중심으로 TV 광고 등 적극적인 마케팅을 진행하면서 전국적인 관심을 받게 돼요.

현재 마켓컬리의 서비스는 전국에 제공되고 있고, 판매 상품도 식자재뿐만 아니라 가전제품까지 확장했습니다. 국내외 유명 맛집과 장인의 제품들이 입점했고, 대기업들도 신제품을 마켓컬리에 입점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불편함을 개선하고자 직접 시작했던 서비스는 이제 고객의 삶 전체에 관여할 수 있는 종합 커머스 몰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65





산소 같은 바닷가에서 모래를 만지다 휴식 같은 불명~ 캠핑+피크닉= 캠프닉의 세계

인문 지리학자인 이푸 투안은 《공간과 장소》(1977)에서 공간에 경험과 애착이 스며들면 비로소 장소가 된다고 하였다. 어쩌면 삶이란 낯선 공간에서 익숙한 장소로 옮겨 가는 과정인지도 모른다. 21년간 군(軍)에서 머물다 바다로 떠난 솔저는 그곳에서 어떤 공간을 발견하였을까? 예비역 육군 중령 서경규의 캠프닉장은 언제 장소로 변해 가고 어떻게 사람들과 소통하는지 머물러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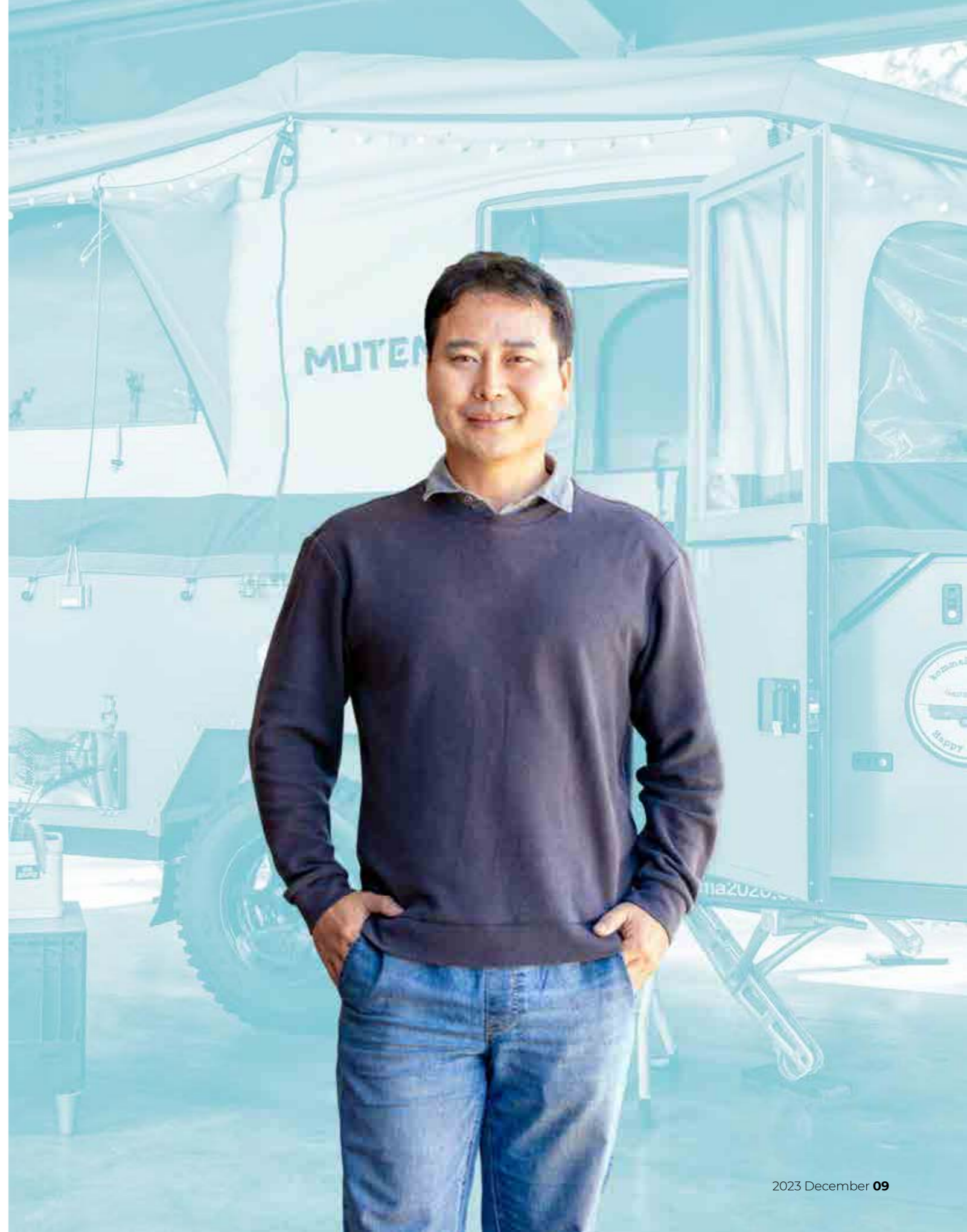
글 장창수 사진 오철민 영상 황지수



QR코드로 접속하면
인터뷰 내용을 동영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서경규 예비역 육군 중령

Seo Kyoung Gyu



우주의 중심으로 돌아온 제대군인

“캠핑이 뭐예요?”

이달의 라이프 체인저에게 제일 먼저 물은 말이다. 세상이 빨라지고 변화하는 가운데 새로운 문화가 등장한다. 그렇다고 이 새로운 앞에서 당황할 필요는 없다. 차근차근 라이프 체인저의 설명을 들으면 된다. 캠핑은 캠핑과 피크닉의 합성어로서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유행하는 여가 트렌드이다. 당일 개념의 피크닉인데 캠핑의 감성까지 누린다. 아침 일찍 몸만 와서 텐트 체험, 모래놀이를 하고 타닥타닥 불멍까지 만끽한 다음 훌연히 돌아가도 된다.

“이런 트렌드에 따라서 창원 지역의 아름다움을 재구성하고 싶었습니다. 어촌관광 콘텐츠를 더해서 공간대여업을 창업한 이유입니다.”

돌아온 솔저(soldier) 서경규 예비역 중령은 남쪽 바다가 있는 창원으로 돌아왔다. 창원시 구산면의 한 바닷가 공간을 꾸며 캠핑장 ‘오투씨’를 창업했다. 오투씨는 산소 같은 바다라는 뜻. 지금은 입소문을 타고 은근 명소가 되어 찾는 이들이 많아졌다고 한다. 캠핑 사이트에 프리미엄급 트레일러와 수영장도 갖추고 있으며, 모래놀이장, 조개체험장, 바비큐 파티장, 불멍 시설 등이 있다. 아이들이 이 공간에 뛰어들면 곧바로 자기만의 장소를 만든다.

레바논 파병 당시 군수과장을 지내는 등 폭넓게 세상을 누볐던 라이프 체인저. 그는 왜 창원으로 돌아왔을까? 여기서 우리는 이푸 투안의 이론으로부터 약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세계 어느 곳이든 사람들은 자신의 고향을 세상의 중심으로 본다는 것이다. 투안의 설명에 따르면 사람도 장소가 될 수 있는데, 가장 근원적인 생명의 장소는 바로 어머니이다. 창원은 서경규 예비역 중령의 고향이며 어머니가 살고 있는 곳이다. 그가 돌아온 곳은 우주의 중심이다.

중령의 아내는 든든하다

“저는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 이 한마디 속에는 우주의 별들처럼 무수한 의미가 묻어 있다. 캠핑장은 물 관리, 시설 관리 등 필요한 손길만 주면 되므로 시간이 넉넉할 거라 생각한 것은 착각이었다. 캠핑장 2층에는 따로 장소를 만들어 어머니를 모시고, 1층에서는 고객을 위해 긴요한 손길을 나눈다. 그리고 나서 라이프 체인저는 또 다른 일들을 챙기러 떠나는 것이다. 그와 함께하는 짧은 시간 동안 삶을 이렇게 살뜰하게도 살 수 있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었다.

이른 새벽, 그는 주상복합 건물의 환경미화원으로 변신한다. 예비역 육군 중령이 청소를 한다고? 게다가 해가 뜨면 (주)아쿠아넷의 영업 사원으로서 사료 배달도 한다. 이 일들을 다 마치면 다시 자기 사업자로 돌아온다. 공간대여 사업 외에도 다양한 어촌관광 콘텐츠를 기획하고 있다. 그는 정녕 행동하는 기획자이다. 문득 대비적으로 마르케스의 《아무도 대령에게 편지하지 않다》(1961)가 떠올랐다. 더 정확하게는 가련한 대령의 아내가.

“전국에는 112개소의 어촌체험 마을이 있어요. 대부분이 인구 고령화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투씨(주)는 이러한 어촌에서 활기찬 어촌관광 콘텐츠를 개발해 전파하고 싶습니다. 현재까지는 6개 마을과 연계하고 있죠. 체험 마을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원하는 체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만개, 편지(결과)가 오게 하는 것

꿈은 막연히 이루어지지 않는다. 라이프 체인저는 전역하기 2년 전부터 미래를 준비하였다. 바다를 좋아해서인지 마지막 직업의 선택으로 어촌에서 역할을 하리라 스스로 다짐



Seo Kyoung Gyu
Seo Kyoung Gyu
Seo Kyoung Gyu
Seo Kyoung Gyu
Seo Kyoung Gyu
Seo Kyoung Gyu

하였다. 수산업 비전공자였으므로 귀어귀촌 교육을 160시간 받았고, 5개월간 힌다리새우 양식 과정에서 실제 사육을 해 보기도 하였다. 생각하고 준비하고 동시에 행동하는 것. 막연히 편지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먼저 뛰어들어 움직이는 것이 그의 방식이다. “어려움도 많았지만, 작년에는 정부지원 사업에도 두 번이나 채택되었고요, 올해는 좀 더 명확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이 나타나서 희망적이기도 합니다.” 지면을 빌려 그가 말한 멘토들의 소중한 이름을 적기로 한다. “창원, 남해, 통영 등의 어촌계장님들, 지역 청년회 원로

분들, 아쿠아넷의 대표 서윤기 박사님, 미래수산 TV 엄주태 대표님 등” 이분들의 이름을 굳이 기리는 것은 라이프 체인저에 대한 필자의 작은 응원일 따름이다. 지역과 융화하고자 하는 뜻이 좋으므로 도와주는 이들이 계속 늘어나는 듯하다. 이달의 라이프 체인저는 우주의 중심으로 돌아와서 끝내 어디로 가려 하는가? “저는 어촌을 배경으로 성공적인 사업 모델을 만들고 싶습니다. 어촌관광 기업으로서 공감을 얻는 순간이 온다면 그것이 제 삶의 만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땐 여러 사람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겠지요. 편지는 기다리는 게 아니라 오게 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65



airportsc.kr

안전한 공항을 보증하는 보안회사 각 잡힌 부드러움, 인천국제공항보안(주)

우리나라의 대표 관문 인천국제공항. 공항의 보안과 경비 등을 책임지고 있는 인천국제공항보안(주)를 찾았다. 3,600여 명의 직원 중 제대군인이 56명. 그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영종도에 발을 디뎠다. 회사의 백정선 대표이사, 최준호 본부장, 최순석 차장, 이한빛 대리를 만났다.

글 장창수 사진 황지수

Q. 인천국제공항보안(주)는 어떤 회사인가요?

백정선 대표이사 인천국제공항보안 주식회사는 인천국제공항의 내·외곽 지역 출입자와 시설을 보호하고, 보안조치, 출입허가, 위해 물품 반입 통제를 주 업무로 하는 회사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관문인 인천국제공항의 최전선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을 가지고, 공항 이용객과 항공기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무결점 항공 보안을 실현하고, 편리한 보안 서비스 달성이라는 최고 가치를 바탕으로 세계적인 공항보안 기업으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Q. 회사 생활에 대한 만족도나 느낀 점 등이 있다면요?

최준호 본부장 저는 2020년 5월 회사 설립TF 멤버로 입사하였습니다. 당시 십여 명이던 직원이 현재 약 3,600여 명으로 커진 회사를 보면서 많은 감회를 느끼고 있습니다. 초기 회사의 기반을 마련하고 7개 기능의 조직을 하나로 합쳐 융화해 가는 과정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물리적 결합보다는 화학적 융합이 훨씬 어려운데 현재까지는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순석 차장 매우 만족합니다! 원칙과 규정 준수를 바탕으로 현장과 실무자들 모두 자유롭게 의견을 제안하고 참여할 기회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회사는 수직적인 관계가 아닌 수평적인 문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직이 경직되면 오히려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요. 임직원 모두의 화합을 위해 경진대회를 여는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한빛 대리 우선 보시다시피 사무실에서 바라보는 경치가 너무 좋습니다. 복지 부문에서도 장점이 아주 많은데요. 복지 포인트, 식권 제공. 전국에 휴양소도 운영하고 있고요. 학자금 대출, 자기계발, 출산 장려금, 어린이집 보육비 등 다양한 지원이 있어 좋습니다. 제 경우에는 업무상 경비지도사 자격이 필요한데 회사 지원으로 준비 중입니다.



Q. 군에서의 경험이 회사 생활에 어떻게 연결될까요?

최준호 본부장 군 복무 시 작전계획장교, 상황장교로 복무하면서 상황조치, 행정처리, 조직관리 능력을 익혔습니다. 이러한 군 복무 경험이 오늘의 제가 있는 초석이 된 거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MZ 세대의 등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군도 그렇지만 기업에서는 더 심하겠죠. 세대 간 차이들을 스스로 수용하면서 화합해 갈 필요가 있습니다.



최순석 차장 보안업무 담당관으로 담당하던 인원보안의 경우 출입 통제 및 출입증 관리, 문서 보안은 규정 및 매뉴얼 작성, 정보통신보안은 사이버 보안, 시설보안은 시설 및 장비 분야에 적용하여 현장 업무부터 행정까지 빠른 적응을 할 수 있었습니다. 보안이라는 것이 지키고 유지하는 것이잖아요. 군에서 함양했던 능력들을 토대로 내가 먼저 실천하는 마음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이한빛 대리 군 복무 시절의 첫 임무는 GOP 경계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철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완전작전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아 소초장으로서의 책임감을 토대로 성공적인 임무 완수를 위해 잠을 아껴가며 작전을 수행한 기억이 있습니다. 현 업무 또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무결점 항공보안이라는 점에서 매우 유사합니다.

Q. 회사에서의 미래 비전이나 개인적인 목표가 있다면요?

최준호 본부장 우리 회사의 비전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공항을 만든다'입니다. 우리 회사는 인천국제공항의 보안경비와 보안검색을 담당하는 것이 주요 업무입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나라를 지키는 군인과 같이, 우리나라의 관문인 인천국제공항의 보안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는거죠. 이러한 막중한 사명감을 바탕으로 회사와 함께 성장한다는 자세로 회사생활을 합니다.

최순석 차장 '가장 안전한 공항을 위한 세계적인 공항보안기업'의 일원으로 우리나라 대표이자 표준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동료들과 함께 세계 최고의 효율적이고 스마트한 공항을 만들어가는 데 도전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핵심 가치인 원칙과 공정 부문도 인사 평가, 승진 시스템 등을 통해 잘 실현되고 있습니다. 어떤 조직이든 마찬가지로 기본 가치가 무너지지 않아야 합니다.

이한빛 대리 '무결점 보안으로 인천공항 운영에 기여하고 세계적인 공항보안기업으로 도약한다'는 것이 우리 회사의 미션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함께 일하는 동료 사이의 신뢰가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현장에서 교대 근무하는 동료들 가장 믿고 있는데요. 입사 이래 한결같이 가족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친구이자 멘토 같은 존재들인 동료

들과 변함없이 잘 지내고 싶습니다.

Q. 전역할 제대군인에게 희망의 메시지 짧게 부탁드립니다.

최준호 본부장 저는 군대에서의 경험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허튼 시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군대에서의 경험들이 모여 미래의 내가 된다는 생각을 갖고, 마지막 순간까지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순석 차장 현재의 조건도 중요하지만 내가 자부심을 느끼며 즐길 수 있는 일에 도전하세요. 그리고 어디서든 누구에게든 배움의 기회가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매일을 응원하겠습니다.



이한빛 대리 다가오는 미래에 대한 걱정, 한편으로는 설렘과 기대로 가득 차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현재의 준비를 열정적으로 하시면 다가오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다 이룰 것이라 믿습니다. ☺



GOD+生

오늘부터 '갓생' 살기!

자기개발을 돕는 직업들

명상으로 시작하는 미라클 모닝

명상전문지도사

실 틈 없이 보낸 하루의 끝. 자기 전 잠깐의 명상은 일상의 평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명상의 효과는 익히 잘 알려져 있지만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지, 꾸준히 실천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명상전문지도사는 든든한 길라잡이가 된다. 이 밖에도 우리나라의 명상문화를 해외에 알리기 위해 숨겨진 명상 장소를 지속적으로 발굴·홍보하고 전문성 및 안정성을 확보한 다양한 명상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관련 자격 및 전공

한국명상지도자협회, 한국명상학회 등의 사단법인에서 실시하는 이론 교육과 실습 과정을 거친 뒤 명상전문지도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마음을 돌보는 것에 대한 사회적 이슈가 지속됨에 따라 명상에 관한 수요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갓생(GOD+生) 살기'가 사회 트렌드로 부상하면서 저마다의 목표와 루틴을 설정하고 부지런한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명상으로 이른 아침을 시작하고 틈틈이 공부하며 자기 계발을 하는 '갓생러'를 위한 직업들을 모아 봤다.

참고 워크넷 한국직업사전, 커리어넷 직업백과



인생의 든든한 멘토

라이프 코치

삶의 방향을 함께 고민해 주는 개인 코치가 있다면, 일상이 더 윤택해지지 않을까? 라이프 코치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고객 스스로가 행복을 얻을 수 있도록 건강, 재무, 취미, 사회 참여, 관계와 소통 등의 이슈에 초점을 두고 코칭해 준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부터 모니터링을 통해 계획 실행 여부 혹은 진척도를 점검한다. 응원과 개선 상황을 모색하는 등의 피드백을 통해 스스로가 세운 계획을 고객이 지속적으로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돕는다.

관련 자격 및 전공

고객의 주요 이슈와 요구사항을 파악해야 하므로 처음 만난 사람과도 잘 어울릴 수 있는 대인관계 능력이 필요하다. 컨설팅 관련 교육을 이수하면 보다 전문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데 도움이 된다.

잠재된 능력을 발견하는

브레인 트레이너

뇌를 잘 활용하는 일은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브레인 트레이너는 두뇌에 대한 과학적인 이해를 기반으로 대상자의 두뇌 특성을 평가하고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훈련 프로그램을 제시한다. 측정 장비 및 상담 도구를 활용해 두뇌 능력을 측정한 뒤 결과를 분석하고 평가한다. 이후에는 뇌 체조, 명상·호흡, 뉴로 피드백 훈련 등 다양한 두뇌 훈련을 지도한 뒤 집중력 향상, 스트레스 관리, 두뇌 발달 촉진 등의 훈련 성과를 평가·관리한다.

관련 자격 및 전공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에서 발급하는 브레인 트레이너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두뇌 훈련 및 활용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과 실천 경험을 갖춘 전문가로 평생교육, 기업체 및 공공기관 연수교육 현장 등에서 활동할 수 있다.

온라인 교육의 장을 만든다

사이버교육운영자

자기계발 분야에 대한 꾸준한 수요가 이어지면서 재테크부터 외국어, 취미 등을 비대면으로 배우는 온라인 교육 시장 규모도 확대되고 있다. 사이버교육운영자는 컴퓨터를 이용해 장소와 시간에 상관없이 의사소통할 수 있는 온라인 교육환경을 설계·기획하는 일을 한다. 사이버 교육 관련 인터넷 웹사이트를 만들고 운영하며 강사와 수강생, 학생과 학생 간의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시로 관리를 한다. 또한, 그림이나 동영상 등을 활용해 학습자가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교육 내용을 구성하고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하는 업무도 함께 수행한다.

관련 자격 및 전공

최신 교육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수집 능력이 필요하며 교육을 수강하는 사람과 교육을 하는 교수자, 교육 기획자, 프로그래머 등 참여 주체 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꼼꼼한 성격의 소유자에게 적합하다.

self-development



건설현장 전기통신소방 안전팀장

주경야독 군인정신으로 마침내 안전을 지키다

이주석 예비역 육군 중령

산업 현장은 재해로부터 안전을 지키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다. 사소한 실수로 인해서도 중대한 재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매의 눈으로 현장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건설현장 안전관리자이다. 전기통신소방 안전팀장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이주석 예비역 육군 중령을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의 한 현장에서 만났다.

글 장창수 사진 황지수



Safety First

Mentee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Mentor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육군 장교로서(정보통신 병과) 30여년의 복무를 마친 예비역 육군 중령 이주석입니다. 현재는 군 복무 시 배웠던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건설현장 안전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소속 회사는 경기도 고양시 소재의 봉등전기(주)입니다. 봉등전기는 38년 전통이 있는 회사로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국내 대기업과의 협력사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Mentee
건설현장 전기통신소방 안전팀장, 직종 소개 부탁드립니다.

Mentor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2022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안전보건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운영해야 하는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트렌드에 발맞춰 봉등전기(주)는 안전팀을 조직하였는데요. 저는 본사와 건설현장의 안전을 총괄 담당하는 안전팀장으로서 Safety First 문화 정착과 재해발생 Zero화 목표 달성을 위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근로자 안전교육, 작업현장 안전점검 등을 통해 위험요소를 제거해 재해 예방에 기여합니다.





Mentee
건설현장 전기통신소방 안전팀장의 일과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Mentor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발걸음이 새벽을 깨웁니다. 새벽 6시 30분 전에 출근해서 작업 준비를 갖추고 7시에 첫 일과로 TBM(안전조회)을 진행합니다. 이후 각 작업반별 작업 장소로 이동하여 오전, 오후 작업을 진행하며 오후 5시에 퇴근합니다. 안전팀장은 주 1~2회 현장안전점검 시 근로자들과 동일한 시간에 출근하여 TBM에 동참해 안전교육을 실시하죠. 당일 고위험 작업 현장에서 안전보건대책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점검 및 이행미흡 시 현장 개선을 통해 안전보장 활동을 해야 합니다. 아울러 회사가 참여하고 있는 모든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Mentee
이 직종에 뛰어들기까지의 과정, 어떤 시험(자격)이 필요하나요?

Mentor
현재 안전팀장으로 2년 차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안전 분야만큼은 TOP이 되기 위해 오늘도 고민하고 연구합니다. 이 일을 선택한 계기는 회사에서 중·대령 지휘관 경험자로서 리더십과 책임감을 요구하였기에 지원했고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주경야독(晝耕夜讀)으로 노력한 결과 산업안전기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회사에서 요구하는 실질적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산업안전(산업)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등의 자격증이 요구되므로 추천해 드립니다.

Mentee
이 직종의 장점이라면 무엇이 있을까요?

Mentor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 최근 안전규제가 강화되면서 건설업 안전관리자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올해 7월부터는 50억 원 이상 공사현장은 의무적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며, 내년 1월부터는 50억 원 미만 공사현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될 예정이기에 안전관리자는 매우 유망한 직종입니다. 거기다 제대군인은 특유의 리더십을 살릴 수 있고 육체적인 면에서도 장점을 발휘할 수 있어 유리합니다.

Mentee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어떻게 극복하셨는지요?

Mentor
제일 먼저 육군 중령 출신이라는 타이틀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사회 초년생으로서 배운다는 자세를 갖추고 노력했습니다. 업무가 이해되고 온전히 내 것이 될 때까지 누구에게든 묻고 또 묻는 습관이 필요했습니다. 낮은 자세로 일하기 위한 마인드컨트롤 같은 게 필요한데요. 저 같은 경우엔 기독교 신앙으로부터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산업안전기사

- 시행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관련학과: 대학 및 전문대학의 안전공학, 산업안전공학, 보건안전학 관련학과
시험과목
 - 필기 1. 안전관리론 2. 인간공학 및 시스템안전공학
 3. 기계위험방지기술 4. 전기위험방지기술
 5. 화학설비위험방지기술 6. 건설안전기술
 - 실기 산업안전실무



Mentee
내가 생각하는 만개란? 혹은 언제였던가요?

Mentor
자연의 이치도 사계절이 있어 꽃이 피고 지는 것같이 인생을 살다 보면 만개의 순간은 여러 번 찾아온다고 생각합니다. 만개의 순간은 좋고 영광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꽃이 지고 다시 만개가 될 때까지 어떻게 잘 견디고 이겨내느냐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은 더욱 가까이 와 있는 것과 같아요.

Mentee
후배 제대군인을 위한 조언을 주신다면요?

Mentor
군 생활의 외길만 달려오다 막상 군문을 떠날 때의 두려움과 걱정은 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리 겁먹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군 생활을 통해 자신도 모르게 적응력과 책임감, 다양한 능력을 갖추고 있었음을 곧 알 수 있으며 군이 나를 이렇게 성장시켜 줬음에 감사의 마음도 들 것입니다. 전직지원교육을 통해 자기와 맞는 직종을 선택하고 자격 조건을 갖춘다면 사회에서도 능히 신뢰받는 제대군인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

크리에이터들과 함께 성장하는

커머스 플랫폼



글 박성하 사진 핸드허그 제공

바야흐로 캐릭터 전성시대! 가방마다 양증맞은 인형이 달려있는가 하면 캐릭터 스티커를 모으기 위해 옷돈을 주고 빵을 사 먹기도 한다. 저마다의 개성과 가능성을 품은 창작자들이 캐릭터를 상품화해 판매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플랫폼을 제공하는 기업 핸드허그를 소개한다.

핸드허그의 대표 서비스인 '젤리크루'를 소개해 주세요.

창작자들이 캐릭터 상품을 판매하는 장터의 개념이다.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전자상거래와 오프라인 매장을 개설해 판매하는 두 가지 방식을 모두 지원한다. 현재 오프라인 매장은 영등포, 신촌, 강남 등 6개 직영매장과 교보문고, 롯데마트 등에서 대신 판매하는 위탁매장을 전국 350개소에 두고 있다. 이와 함께 배송을 위한 물류센터도 운영 중이다. 창작자들이 상품을 물류센터로 보내면 여기서 구매자에게 배송하고 비용은 핸드허그가 부담한다. 이용이 편리한 만큼 현재 젤리크루를 이용하는 창작자들은 개인과 기업을 포함해 약 700팀에 이른다.

입점 방식과 주요 상품군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나요?

한 달 정도의 내부 심사를 거쳐 주당 2~3팀 정도 입점시킨다. 디자인 수준과 SNS의 팬 등 인지도를 확인하기 때문에 입점을 희망하는 창작자들은 반드시 SNS 계정을 갖고 있어야 한다. 상품군도 다채로운데 문구류에서부터 리빙, 잡화까지 4만 5천 종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작가의 캐릭터를 빵, 음료, 화장품 등 다양한 상품에 적용하는 외부 브랜드 콜라베레이션도 진행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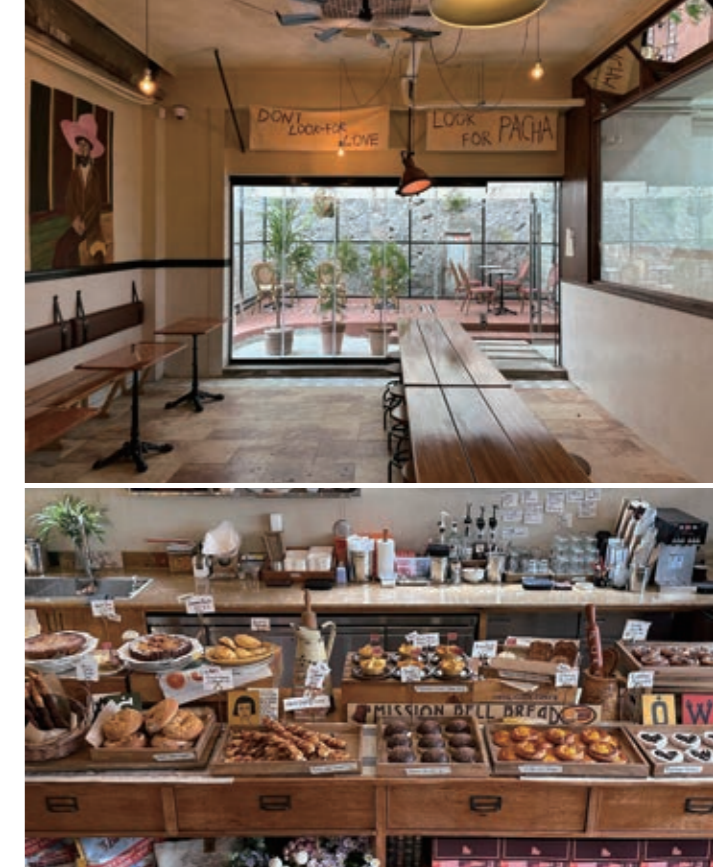


그간의 성과들이 궁금합니다.

상위 5% 창작자들을 '패밀리 크리에이터'로 분류해 상품 제조사까지 연결해 준다. 창작자들은 2019년 젤리크루 서비스가 시작된 이후 누적으로 80억 원 이상의 수익을 정산받았다. 창작자 중에서도 베스트 크리에이터가 되면 핸드허그에서 비용을 들여 상품 기획 및 마케팅까지 지원한다. 대표적인 캐릭터로 '꽃카'와 '망붕이'가 있다. 창작자 영이의 숲이 만든 꽃카 캐릭터는 지난해 꽃카빵으로 개발돼 CU 편의점에서 월 40만 개 이상 판매됐다. 토끼를 의인화한 망붕이도 상품화를 통해 100억 원 이상 거래액을 기대하고 있다.

의류 분야에서도 주목받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크리에이터들과 함께하는 브랜드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가 나왔고 패션사업으로 이를 실현하게 됐다. 939로고와 10만 장 이상 팔린 스웨트팬츠로 유명한 스트리트 캐주얼 브랜드 '아카이브 볼드'는 허니제이, 아이키, 흑 등의 유명한 여성 댄서들이 제품을 착용하기 시작했고 SNS에서 반응을 얻으면서 브랜드가 자연스럽게 노출됐다. 예능 프로그램과의 협업 등으로 다양한 마케팅을 진행했고 아이브, 에스파, 세븐틴 등 아이돌 그룹의 멤버들도 즐겨 입으며 MZ 세대를 겨냥한 다양한 의류들로 유명세를 타고 있다.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앞으로의 목표는?

K-캐릭터의 수출을 목표로 두고 있다. 첫 번째 성과로 지난 2월 일본 유통업체인 캔디아고고와 제휴를 맺고 일본 시장에 진출했다. 옹크린 선인장이라는 뜻의 캐릭터 '웅장'을 활용한 상품을 출시했으며, 중국과 베트남 수출도 준비 중이다. 중국에서 협력 상대와 사업을 시작했고 베트남에서는 대표 SNS인 Zalo 내 젤리크루 IP를 이모티콘으로 출시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다. 탄탄한 성장 가능성에 힘입어 굵직한 기업들의 투자도 이어지며, 누적으로 110억 원을 투자받았다. 2020년 한 해 매출 23억 원에서 지난해에는 126억 원으로 상당 곡선을 기록 중이다.

끝으로 하고 싶은 말

세계시장에서 통해야 하고, 회사와 개인이 함께 성장할 수 있으며, 확실한 1위 사업자가 없는 사업 아이템. 이 3가지 기준을 세우고 2015년 핸드허그를 창업했다. 녹록지 않은 현실에 힘든 시기를 겪었지만, 스타트업 창업을 후회하지 않는다. 창업은 직업이 아닌 앞으로 살아갈 삶의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창업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책임감이라 생각한다.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의미 있는 가치를 꾸준히 창출해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 중 하나로 성장하길 희망한다. 65

2023년 제대군인 리스타트 챌린지 수기 공모전 우수상

로봇 태권브이의 비상을 꿈꾸며

글 손건희 예비역 육군 소령



1970~80년대에 어린이들에게 로봇 태권브이는 꿈과 희망이었으며, 로망 그 자체였다. 주인공 훈이는 태권브이를 조종하며 악당들을 물리친다. 그 시절 나는 세상에서 가장 크고 힘센 로봇 태권브이를 조종하는 훈이가 되고 싶었다. 그 소년은 어느덧 50대 중년이 되었다.

나도 예비군 지휘관 시험을

현역 시절 국가기능공 자격증을 취득할 기회가 있었다.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의 종류는 많았으나 병사들 이외에 간부들은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았다. 관심 있는 사람들만 자격증에 도전하곤 하는데 나는 로망으로 여겼던 중장비 분야에 지휘관의 승인을 받은 후 도전하여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자격증을 한 개, 두 개 도전하다 보니 어느새 중장비 분야의 7대 자격증 중에서 4개를 취득하였다. 커다란 중장비에 탑승한 후 조종석에서 조종 레버를 움직일 때마다 느끼는 묘한 감정과 희열 덕분에 어릴 적에 꿈꾸던 로봇 태권브이를 조종하는 훈이가 된 것 같았다. 그런 희열과 기쁨을 잊은 채 나는 현실적인 문제를 앞세워 예비군 지휘관 시험공부를 시작하였다.

전역 후 대전지방보훈청 제대군인지원센터에서 지원해 주었다. 상담사님이 멘토가 되어 기초상담과 진로 결정을 도와줬다. 또한, 각종 교육 프로그램도 추천해 주셔서 충남서부보훈지청에서 사회적응 교육도 받았다. 주말이면 지방

에서 서울로 학원을 다니며 열심히 공부했다. 수입이 연금밖에 없자 아내는 어린이집에 나갔고 나는 공부하는 백수가 되었다. 그 심정은 참으로 이루 말할 수 없었지만 고생하는 아내의 얼굴을 떠올리며 빨리 합격하고 싶었다. 그러나 공부도 재능이 있어야 하는 것이었다. 다들 제각기 타고난 선천적인 공부 능력은 합격 시기를 조율해 주었다. 나도 합격 시기가 늦어질 뿐이라고 생각하며 3년 동안 쓰라린 고통 속에서 6번의 도전을 했으나 결과는 실패였다. 너무 야속하고 참담했다. 눈물 흘리며 공부하고 이겨내면 될 줄 알았다. 세상이 미웠다. 하지만 3년이란 시간을 시험에 응시한 것을 두고 후회하지는 않았다. '왜 또 나만 안될까?'라고 생각할 틈도 없이 그다음에 더욱 큰 문제였다. 내 능력의 한계를 알게 되었고 포기할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잠재된 능력을 다시 찾아

시험 결과가 나온 후 며칠이 지나 제대군인지원센터 상담사님과 통화를 하게 되었다. 취업 정보 제공과 상담이 이루어졌고 상담 결과 다음 진로로 귀농을 선택하였다. 그러나 1년 후 품삯과 농약값을 제외하고 이것저것 결산해 보니 터무니없는 금액이 내 손에 돌아왔다. 1년간 수고가 헛된 것 같은 느낌이었다. 내 마음과 정신도 피폐해지고 점점 우울해지고 성격은 더욱더 소심해졌다. 그렇게 지쳐 있고

현실에서 도피하고 있던 나에게 아내가 취업에 도전해 보기를 권유했다. 우선 객관적인 분석을 해 보았다. 나의 장단점, 자격증, 기술, 성격 등을 꼼꼼하게 분석하고 제대하기 전 적성검사서에서 중장비 조종원이 나왔던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나의 잠재된 능력. 내 능력을 찾아냈다고 해서 바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다. 하루하루 초조함과 불안함 속에서 구직 활동을 다시 하게 되었다. 제대군인지원센터, 각종 취업 사이트, 버룩시장의 생활정보지 등에서 올라오는 취업 정보 등으로 다양한 경로를 알게 되었다. 그러나 현실의 벽은 너무 높았다. 아니 그 첫 번째 높은 벽은 나의 자존심이었다. '난 소령 출신인데 내가 저런 일을 해?'라는 생각에 내 자존심이 상했다. 그러다 보니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선택의 폭은 매우 좁았다. 자존심을 버리는 일. 나를 인정하는 일. 너무 미칠 것 같았다. 여러 곳에 취업 지원서를 제출했으나 나를 불러주는 곳은 없었다. 탈락한 회사의 인사담당자에게 물으니 나이가 많고 경력이 없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지쳐 있던 중 생각지도 못한 물류회사의 서류전형 합격 문자를 받게 되었다. 70톤 무게의 대형 중장비 조종원을 모집하는데 드디어 면접을 보러 오라는 것이었다. 면접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지만 난 언제나처럼 최선을 다하기로 결심했다. 나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선 나의 근면, 성실한 면을 장점으로 세웠다. 나는 학교 다닐 때와 군 생활을 할 때 지각 한 번 하지 않았고 바로 그것이 장점이었다. 회사 특성상 늦게 출근하는 사람이 있게 되면 업무에 차질이 많이 생기는 일이었다. 그래서 출퇴근이 명확히 잘 지켜지는 인력이 필요한 회사였다. 면접관으로 오신 회사 이사님께서 군 출신에 근면 성실하고 자신감이 있어 마음에 든다고 하셨다. 곧 나와 아내는 최종 합격 소식을 듣고 감사의 눈물을 흘렸다. 50대에 회사에서 일할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무척 감사했다.

나이가 가장 많은 나. 하지만 팀의 막내

첫 출근 후 나는 선임 직원의 중장비 소개에 깜짝 놀라고 말았다. 한 번쯤 어느 기차역 인근에서 봤던 대형 중장비. 그 장비의 이름은 '리치스태커'였다. 생소한 이름은 둘째치고 그 장비 크기에 놀랐고 선임 직원들이 집채만큼 어마어마한 크기의 컨테이너를 들고 일하는 모습에 놀랐다. 마치

※ 본 수기는 개인의 경험으로 정부의 정책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수기는 지면 관계상 내용이 다소 요약되었습니다.

어릴 적 TV에서 보던 로봇 태권브이가 내 눈 앞에 펼쳐진 것 같았다. 그 순간 나는 묘한 매력에 빠지고 말았다. 이 장비의 특성은 세 종류의 중장비가 복합된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 나는 다행히 중장비의 특성을 잘 알고 있어서 기술 습득에 어려움이 없었다.

드디어 2주 후 결정적인 실력 테스트 날! 휴일 근무일에 기사반장과 단둘이 일하게 되었다. 나는 최선을 다해 중장비를 다루며 신속하고 정확하게 일을 마쳤다. 드디어 그 깡깐한 기사반장도 마치 경력이 몇 년 있는 사람 같아하며 합격이라고 인정해 주었다. 3개월의 수습 기간이 끝나고 나는 정직원이 되었다.

나는 중장비를 다루는 직원 중에서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이지만 팀의 막내다. 나는 가장 일찍 출근해서 장비에 시동을 걸고 각종 안전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청소하며 작업 세팅을 해 놓는다. 당연히 막내라고 생각하고 나이와 상관없이 누군가 해야 한다면 내가 먼저 하곤 한다. 선임 직원들은 나의 행동에 늘 고마워한다. 기술직이라 정년이 없어 능력만 되면 나이에 관계없이 계속할 수 있다. 힘들고 짜증 날 때도 있지만 군 생활 때 고생보단 아무것도 아니라 생각한다. 그 힘든 군 생활도 23년을 견뎠는데 못 할 일이 있겠는가? 비록 어느덧 제대한 지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군인정신은 여전히 나를 일으켜 세우고 있다. 군은 내 인생의 상징이다. 그 시절이 있었기에 현재의 나의 모습이 있고 이렇게 당당히 설 수 있는 것이다. 군은 나에게 다양한 경험과 많은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

지난 10년간의 내 인생은 떨어짐의 연속이었다. 진급에서 계속 떨어졌고, 오랫동안 준비했던 예비군 지휘관 시험에서도 6번이나 떨어졌다. 입사 시험에선 1차 서류전형에서 광탈을 맛보았다. 하지만 나는 이 수많은 불합격이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지금의 삶이 즐겁고 매우 행복하다.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행복감들이 나의 삶을 풍요롭게 해준다.

이 일을 시작하고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매일 아침 출근이 기대된다. 어릴 적에 로봇 태권브이를 조종하는 훈이를 꿈꿨던 나는 이제 이 커다란 장비를 조종하며 내 꿈의 날개를 더욱더 크게 펼칠 것이다. 나의 꿈에 대한 도전은 현재진행형이며 60이 되고 70이 되어도 멈추지 않을 것이다. 📖

인생 이모작을 위한 직장인 커리어 관리

— Career management for office workers —

명예로운 전역, 성공적인 이직은 수많은 제대군인들의 희망사항이다. 백세시대, 인생 이모작, 삼모작을 준비해야 하는 요즘, 무엇을 어떻게 관리해야 자신의 경력과 기술을 제대로 인정받으며 본인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다음은 제대군인지원센터 취업상담사를 비롯하여 컨설팅 전문가들이 언급하는 '제2의 인생을 위한 경력 관리' 방법이다.

정리 편집실

첫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떠올려 보자. 나의 꿈은 무엇이었나?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자신의 비전을 설정하고 가정 상황, 양육 계획,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장기적·단기적 목표로 생애 설계를 하자.

둘째, 자격증을 갖추고 인맥을 넓히자. 직무 수행을 위한 기술을 익히고 필수 자격을 갖추자. 지인들과의 만남, 전문가 그룹 등을 통해 최신 정보를 얻으면 경력 관리 방향을 수정·보완해 갈 수 있다.

셋째, 스스로를 믿고 적극적으로 도전하자. '완벽한' 자격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일단 도전해 보고, '될 때까지' 시도해 보는 노력이 필요하다. 지원과 면접, 직무도 해볼수록 실력이 는다. 희망 분야와 일치한다면 불굴의 정신을 발휘해 보자.

제대군인의 경우,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지원센터, 국방전직교육원, 각 지역 고용센터에서 기업·직무·채용 정보, 교육비 지원, 취업·창업 상담, 경력 관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지속적인 관리도 받을 수 있다.

빛나는 업적 & 실적 경력기술서 작성법

01

경력기술서란?

좀 더 유능하고, 회사에 맞는 인재를 찾기 위해 회사는 경력자를 채용할 때 이력서와 함께 경력기술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경력기술서는 업적과 실적을 중심으로 한 자기소개서라고 보면 된다.**

자신의 전문성을 어필할 수 있도록 구체적 경험을 토대로 솔직하게 작성해야 한다. 단순 나열식보다는 자신이 수행한 프로젝트 경험과 완수 방법, 자신의 역할 등을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다. 특히 역할에 따른 성과를 수치로 표현하면 신뢰감을 높일 수 있다.

02

기술과 실적이 돋보이게!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력과 지식, 기술을 강조해야 한다. 자신의 이력과 업무 성과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직무에 얼마나 적합한지를 부각시킨다. **그동안 수행했던 직무 내용, 실적, 자격, 직책, 성과 등을 자세히 기술한다.**

03

기업 목표와 비전에 맞게!

일에 대한 의욕은 실적과 비전으로 나타나므로 자신이 이룬 실적과 취업하려는 기업이 추구하는 목표에 부합하도록 어필한다. **기업은 적극적인 사람, 집중력이 좋은 사람, 열정이 있는 사람을 좋아하므로** 경력기술서는 의욕적으로, 목표지향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04

한눈에 보기 쉽게 표현!

경력기술서는 특별한 양식이 없기 때문에 읽는 사람이 한눈에 보기 쉽도록 깔끔하고 분명하게 써야 한다. **단어, 맞춤법, 띄어쓰기에 주의해야 하며, 문장은 복문이 아닌 단문으로 써야 한다.** 꾸미는 말이 너무 많아도 안 된다. 또한 막연한 설명을 늘어놓기보다는 수치를 활용한 표현으로 신뢰를 줄 수 있도록 한다.

05

회사가 요구하는 양식으로!

자체 회사 양식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회사 양식으로 작성한다. 엑셀 파일 또는 PDF 파일로 제출하는 경우는 금물이며 M/S 워드 또는 한글 파일로 작성한다.

당신의 제1 인생 스토리가 국가와 국민을 위한 헌신과 봉사, 충성의 길이었다면, 제2, 제3의 인생은 어떤 길이기를 원하시나요?

혼자 걷는 쓸쓸한 길이 아니라 함께 걷는 든든한 길이 되도록 제대군인지원센터가 함께하겠습니다.

제대군인 취·창업 지원 절차



1:1 맞춤형 취·창업 컨설팅

국가보훈부는 제대군인지원센터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전직지원 신청을 등록한 제대군인에게 1:1 전담상담사를 배정하고 군복무 직무 경험과 강점 등을 분석하여 제대군인의 진로 목표를 고려한 맞춤형 취·창업 지원을 돕고 있습니다.



제대군인지원센터 지원 조직



- **취업상담팀:** 진로 목표 설정, 취업상담 및 정보제공, 해외취업(서울) 등
- **기업협력팀:** 일자리발굴, 정보제공 및 채용추천, 구인구직행사 등
- **교육행정팀:** 위탁교육, 직업능력개발교육비, 전직지원금 등
- **창업지원팀(서울):** 상담 및 정보제공, 창업보육실 운영, 귀농·귀촌 등

창업지원 프로세스

- 1 준비단계**
(창업정보수집)
 - 초기 창업 상담
 - 창업 정보 수집·분석
 - 창업교육(서울센터에서 지원)
- 2 실행단계**
(실전창업)
 - 사업계획서 작성, 자금조달 및 집행계획
 - 점포 계약 및 행정절차
 - 개업 준비 및 개업식
- 3 사후관리**
 - 사업성과 확인
 - 필요시 추가 컨설팅

창업지원 방법

- 창업워크숍**
 - 기초 및 심화 워크숍 지역별 순회
 - 창업 희망자 교육 및 상담
- 지문위원단 운영**
 - 창업 관련 전문 분야 정보 및 자료 제공
 -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개인 민원 시안 상담
- 창업보육실 지원**
 - 예비·초기 창업자에게 창업준비 공간 제공
 - 사업화·경영·행정 등에 대한 컨설팅
- 주요 지원 행사**
 - 업종별 체험하는 창업 탐방
 - 제대군인과 가족 귀농(촌) 체험

취업지원 프로세스

- 1 준비단계**
 - 진로설계 및 목표설정
 - 이력서, 면접 스킬 배양
 - 마스터 이력서 작성
- 2 실행단계**
 - 채용정보 분석 제공
 - 맞춤 이력서 클리닉, 모의면접
 - 채용추천, 동행면접
- 3 사후관리**
 - 취업 후 경력 관리
 - 이직 재취업 지원

취업지원 방법(전직 컨설팅)



- 초기 진로상담 및 전직목표 설정
- 취업역량 함양 교육: 워크숍, 위탁교육, 사이버교육, 직업능력개발 교육
- 취업알선 및 취업 후 사후관리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 **유형별 분류:** 연금 대상·비대상, 자격증 보유·미보유 등
- **여성 제대군인:** 혼인 여부(자녀 양육) 등 상이한 취업 욕구 고려
- **시니어 제대군인:** 연금 미수혜자 집중 지원 및 사후관리
- **의무복무 제대군인:** 취업맞춤특기병, 경상이자, 모범장병 등

상담문의



- ※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지원센터 전국 10개소
- 대표번호: ☎1666-9279(군인친구)
- 웹사이트: www.vnet.go.kr
- 검색창

#제대군인 #제대군인지원센터

게으른 게으른 게으른 완벽주의자, 완벽주의자, 완벽주의자



Q

규칙적인 군대와는 다르게 스스로 통제하고, 실행해야 하는 일상이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 목표를 세워 놓아도 몇 번 하다가 쉽게 포기하게 되고, 혹은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게 됩니다. 완벽하게 잘 해내고 싶은 욕심 때문에 무언가를 시작하기도 전에 스트레스부터 받습니다. 게으른 완벽주의 성향의 저, 어떻게 하면 목표를 이룰 수 있을까요?

글 박민선
『아주 작은 시작의 힘』 저자

목표를 이룰 수 있을까요?

A

우리가 일을 이루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잘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입니다. 특히, 실수가 용인되기 힘든 환경이었던 직업군인으로서의 기억 때문에 시작하기도 전에 스트레스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군에서 이미 수많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 자신을 통제하는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마치 목표 달성 '경력적' 같은 느낌이지요. 다만, 목표 설정과 진행 과정을 회고할 누군가가 '자신'이라는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이제는 하달받은 목표가 아니라, 온전히 내가 원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는 차원이 다른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목표가 잘 지켜지지 않을 때는 3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원인 1
목표 설정이 잘못된 경우

중요하고 절박한 목표가 아니라면 동기부여가 어렵습니다. 목표를 설정할 때는 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에 부합하는지, 내 욕망과 일치하는지, 나의 정체성과 맞는지 두루 생각하며 설정해 주세요.

원인 2
할 일을 구체적으로 세우지 않았거나
시간 관리가 힘든 경우

적당한 난이도로 구체적으로 계획해야 꾸준히 실행할 수 있습니다. 거창한 계획이라면 부담감 때문에 지속하기 힘들고, 너무 쉬우면 성취감이 안 느껴지겠죠? 실천해 가며 내 페이스에 맞게 조절해야 합니다.

원인 3
진행 상황을 체크하고
꾸준히 스스로 동기부여 할 방법이 없는 경우

장기 목표는 변화가 금방 보이지 않아서 포기하기 쉽습니다. 목표를 이루는 과정을 기록하며 스스로 동기부여 해주어야 합니다. SNS에 목표 달성용 계정을 만들어 사진과 함께 짧은 기록을 남기는 것도 좋습니다.

<TV동물농장> 프로그램을 본 적 있나요? 동물을 구하려면 일단 먹이로 유인하여 포획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유인하기 위해서 좋아하는 것을 '해야 할 일' 입구에 두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운동을 시작한다면 내 퍼스널컬러에 딱 맞는 나를 돋보이게 할 디자인의 운동복을, 글쓰기를 하기로 했다면 아름다운 노트북을, 일기를 쓰려면 글이 쓰고 싶어지는 예쁜 디자인의 일기장과 필기감이 좋은 필기구를 장만해 봅시다. 그리고 이를 사용하며 자기계발하는 '멋진 나'를 상상해 봅시다.

이렇게 유인에 성공했다면 필요한 장소에 나를 데려다줍니다. 운동을 한다면 집에서 가까운 피트니스 센터에 등록하고 집에서 글쓰기가 힘들다면 분위기가 차분하고 일할 맛이 나는 카페에 갑니다. <기생충>으로 아카데미 감독상을 탄 봉준호 감독도 하루에 카페를 세 곳이나 옮겨 다니며 시나리오를 썼다고 하죠.

일할 때는 이미 아는 음악을 반복해서 듣는 것이 일의 내용에 집중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더라고요. 질문자님도 일 모드를 만들어 보세요. 일하는 시간과 배경음악 등을

정해두고 늘 똑같은 환경에서 시작한다면 무의식이 '이 환경에서는 꿈쩍없이 일해야 하는구나' 하고 준비가 됩니다. 참고로 '일할 기분'을 내는 저의 루틴은 다음과 같습니다.

...
1단계. 이전에 했던 것들을 본다
의외로 잘한 결과물에 감탄하며 자신감을 충전한다.

...
2단계. 아이돌 안무 영상을 본다
'열심히 하는 이는 반짝이는구나'라는 생각에
의욕이 차오른다.

...
3단계. 노동요를 틀고 좋아하는 음료를 앞에 둔다.

...
4단계. 일을 시작한다.

마지막으로 정말 하기 싫을 때 제가 썼던 방법을 소개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30대를 1년마다 딱 1개 목표만 세우고 꾸준히 실천했는데요. 하기 정말 싫을 때는 '올해의 마지막 날'을 어떤 기분으로 맞이하고 싶은지 스스로에게 물으며 힘을 냈습니다. '아, 내가 그렇지 뭐. 올해도 망했다'라는 열패감으로 맞이하기보단, '아, 올해는 그래도 내가 애썼네'라는 뿌듯함을 맛보고 싶었어요.

질문자님, 정말 하기 싫을 때는 어떤 기분으로 올해 12월 31일을 맞이하고 싶은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며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상상보다 훨씬 더 멋진 미래의 내가 오늘의 질문자님을 미소 지으며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행운을 빕니다. ☺





부드러운 미소에 총명한 눈빛
비서부터 드라마 제작사 마케터까지

배우 공명

스마트한 세상일지라도 마음을 움직이는 일만큼은 기계가 인간을 대신할 수 없다.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상사의 일을 보좌하는 비서 역시 끈끈한 신뢰 관계가 우선이고, 드라마 제작 역시 감성을 흐드는 일이 중요하다. 인간적이고 반듯한 이미지로 시청자를 설레게 하는 배우, 공명이 그려낸 비서와 드라마 제작사 마케터를 알아보자.

정리 편집실 사진 사람엔터테인먼트 제공

GONG MYUNG

어떤 일이든 능수능란하게, 비서 드라마 <변혁의 사랑>

한국 | 2017년 | 연출 송현욱, 이종재 극본 주현 | 권제훈 역
대기업 '강수그룹'의 차남, 재벌 3세 변혁이 당차고 씩씩한 프리터족인 백준에게 첫눈에 반해 백수로 신분을 속이며 일어나는 일을 다룬 로맨틱 코미디 드라마이다. 이후 두 사람은 그룹의 비리와 부도덕한 일들을 함께 고발하며 그야말로 재미있는 '변혁'을 일으킨다.

일거수일투족 책임감이 따르는 비서

사무실이나 조직에서 행정 지원을 하는 사람이다. 일반비서, 관리비서 등으로 나뉘는데, 일반비서는 상사의 일정을 계획하고 조정하며 각종 우편물과 서류 보관, 자료 정리와 전화 응답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관리비서는 정치, 경제 등 각 분야별 상사의 보좌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데 회사 내 민감한 기밀 정보를 처리하거나 전문적인 행정 업무, 회의록 작성 등을 맡기도 하며 상사가 최대한의 업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돕는다. 비서의 임무는 조직의 규모와 직위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지지만 조직을 위한 책임감은 공통적으로 필요한 요소이다.

비서가 되기 위해선

전문대 이상의 학력이 필요하고 비서학과, 비서행정학과 등 유사 전공을 하면 유리하지만 사실 학원에서도 국가자격증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사무관리에 대한 전문 지식과 워드프로세서, 엑셀 등의 프로그램을 유연하게 다룰 수 있다면 더욱 유리하다. 기술이 발달하며 비서가 수행하는 일정 관리, 예약 등 간단한 업무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도 대체가 되기에 비서로서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면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도 꾸준히 의료, 법률, 회계 등 특정 산업이나 외국계 업체 전문 비서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출처_ tvN



출처_JTBC

감성을 잘 팝니다, 드라마 제작사 마케터 드라마 <멜로가 체질>

한국 | 2019년 | 연출 이병헌, 김혜영 극본 이병헌, 김영영 | 추재훈 역
스타 드라마 작가를 꿈꾸고, 홀로 아이를 키우고, 슬퍼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기도 하는 제각각 다른 매력을 가진 서른 살 여자 친구들의 이야기이다. 비록 이룬 것은 없더라도 일과 연애, 모두 잘하고 싶은 이들이 유쾌하고 곳곳하게 앞으로 나아가는 드라마이다.

시청자와 콘텐츠를 엮는 드라마 제작사 마케터

최근에는 지상파 방송국 외에 다양한 플랫폼에서 드라마를 제작하고 있다. 변화의 물결을 따라 드라마 콘텐츠의 퀄리티도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 이를 돕는 것이 드라마 제작사이다. 완성된 드라마는 시청자에 의해 보아야 비로소 완성된다. 제작사 마케터는 타깃과 시장을 고려해 구체적인 마케팅 전략을 세워 광고, 로고와 포스터, 티저 등의 비주얼적인 요소를 만들기도 하고 드라마 제작 지원을 위한 간접광고, PPL을 담당하는 업무를 맡기도 한다. 각종 매체와 광고 등을 기획하며 시청자와 드라마를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

드라마 제작사 마케터가 되기 위해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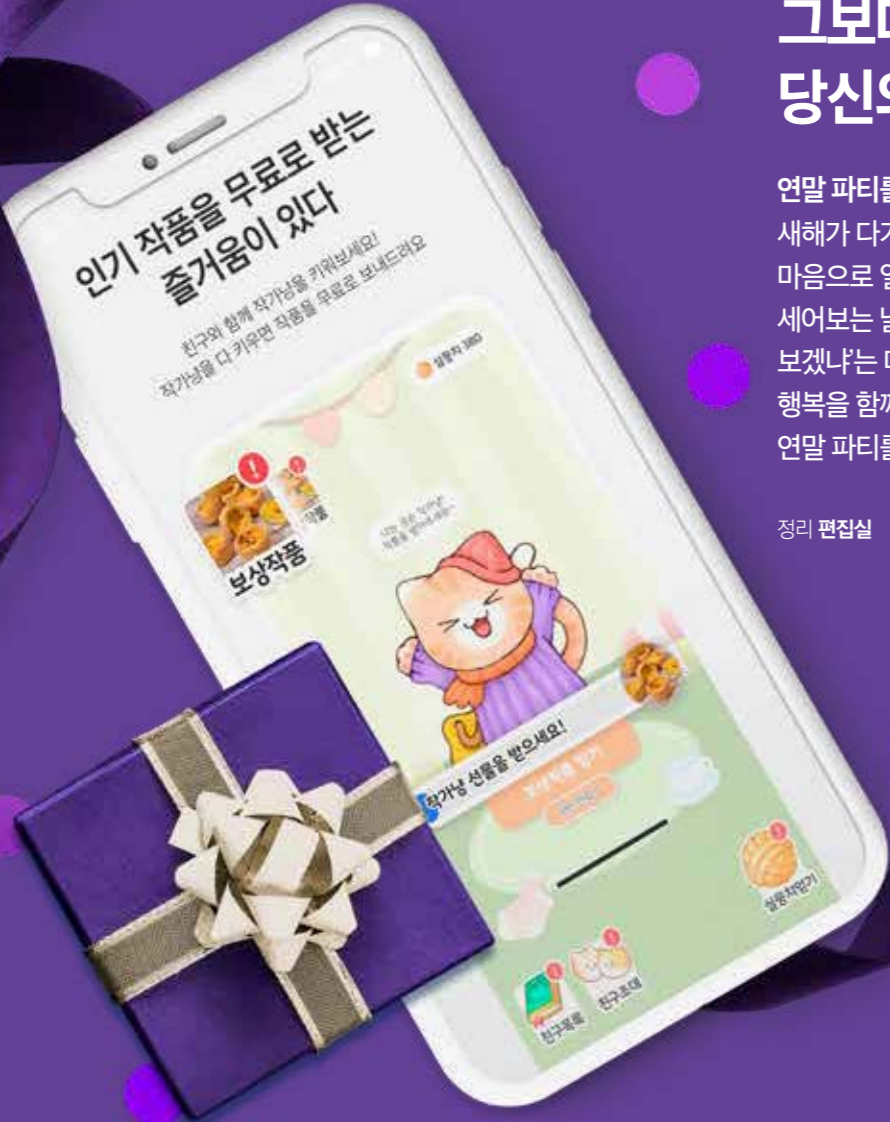
관련 전공보다도 업무 경력과 포트폴리오가 더욱 중요하다. 특특 튀는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눈에 띄게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유리하다. 창의적인 마케팅 전략과 더불어 데이터와 통계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한다. 또한 다양한 직군과의 협업이 필수적이라 원활한 소통 능력이 필요하다. 드라마 콘텐츠에 관한 높은 관심도와 전문 지식, 감성적인 이해력으로 시청자가 원하는 바를 정확히 꿰뚫는 통찰력이 있어야 한다. 각종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하거나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다양한 업계 소식을 접할 수 있다. 📺

다가올 2024년, 그보다 빛나는 당신의 눈동자에 건배...

연말 파티를 위한 애플리케이션

새해가 다가온다. 섭섭하지만 약간의 설레는 마음으로 얼마 남지 않은 2023년의 하루하루를 세어보는 날이 많아진다. '이때 아니면 또 언제 보겠냐'는 마음으로 뭉친 친구들, 다음 해의 건강과 행복을 함께 비는 가족, 그리고 사랑하는 연인과의 연말 파티를 위한 애플리케이션을 소개한다.

정리 편집실



데일리샷

파티의 분위기를 좌우하는 것은 바로 주류이다. 느긋한 와인, 발랄한 샴페인, 쿨한 맥주... 어떤 모임과 술을 원하든, 데일리샷을 실행하면 선택과 구매는 빨라진다. 1,700여 종의 주류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구하기 힘들었던 원하는 술을 동네에서 바로 픽업할 수 있다. 와인 애호가부터 위스키 입문자, 맥주러버까지! 모두의 입맛을 위한 주류 추천 시스템과 놓치면 후회할 한정판 패키지, 한정수량 판매제품도 발 빠르게 체크할 수 있다. 색다른 칵테일 레시피도 제공되니 낭만적인 연말 파티가 기대된다.

글라이드

가족과의 송년회를 위한 상차림, 어떻게 준비해야 좋을지 막막하다면 신선한 자연 식재료로 맛을 낸 밀키트 전문 앱, 글라이드를 추천한다. 직접 우려낸 깊은 맛의 탕과 찌개, 두툽한 고기 식감이 살아있는 함박스테이크 등 최고의 맛을 자랑하는 간편식품을 골라 담을 수 있다. 유통과정이 줄어 가벼운 가격으로 집까지 배달되지만 구매가 망설여진다면 '상품 체험단'을 신청해 보자. 간편식이지만 건강도 놓칠 수 없는 법! 원하는 상품만 모아 칼로리 계산도 가능하다. 요리하는 시간은 줄고, 맛과 건강은 톡톡히 챙길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다.



만개의 레시피

연말을 맞이해 떠난 여행지에서 근사한 요리를 선물하는 건 어떨까. 비록 서툴더라도 1,000만 이용자가 선택한 애플리케이션 요리책, 만개의 레시피만 있다면 문제없다. 무려 20만 개가 넘는 다양한 레시피와 요리 노하우가 정리되어 있어 요리 초보도 고수처럼 쉽게 요리할 수 있다. 내가 가진 재료를 입력하면 당장 만들 수 있는 레시피를 알려주니 냉장고 파먹기도 가능하다. 요리가 재밌어지는 재료 손질법, 요리 꿀팁 등도 배울 수 있고 앱에서 추천하는 다양한 핫딜상품도 구매할 수 있으니 '요알못'의 도전이 쉬워진다.

아이디어스

연말, 새해, 그리고 크리스마스! 12월이 기다려지는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캐롤만 들어도 마음이 들뜨고 거리에 반짝이는 알전구 장식에 캔슬레 미소를 짓게 된다. 설레는 연말,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더욱 즐기기 위해 방 안의 작은 소품을 바꿔보자. 아이디어스에서는 작가가 핸드메이드로 만든 라이프스타일 소품과 이야기가 담긴 독창적인 작품을 구매할 수 있다. 또한 색다른 취향의 인테리어 아이템과 독특한 스타일의 음식, 나만을 위한 디저트 등도 준비되어 있어 하루는 특별해지고, 크리스마스 분위기는 더욱 무르익는다.



쿠키베베

로맨틱한 자리에 빠질 수 없는 것은 바로, 달콤함이다. 작지만 큰 정성이 들어가는 쿠키, 케이크 등 디저트를 애플리케이션과 함께 직접 만들어보자. 쿠키베베에서는 홈베이킹을 위한 제과제빵 재료와 도구, 포장용품 등을 디저트별 세트에 구입할 수 있다. 500개가 넘는 베이킹레시피도 준비되어 있으니 더 이상 두려울 게 없다. 유명 베이커리와 레스토랑, 카페에서도 많이 이용하는 앱인 만큼 품질을 믿을 수 있고, 저렴한 가격으로 주문할 수 있어 좋다. 평일 5시 이전에 주문하면 당일 출고되기에 오븐을 예열해 두고 기다리면 된다. 65

연말을 특별하게 장식하는 근사한 여정, 울산

어김없이 다가온 결실의 계절. 다채로운 역사·문화 콘텐츠와 자연이 만들어 낸 풍광을 고루 갖춘 울산에서, 한 해의 마무리를 특별하게 장식해 보면 어떨까.

글 박성하 사진 울산광역시청 제공



1

초록의 겨울 정원을 걷다, 태화강 국가정원

공업도시라는 수식어가 늘 함께하던 울산이 친환경 '생태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태화강 둔치의 방치되어 있던 십리대숲을 정비하고 농경지로 이용되던 태화들 사유지를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시킨 것이다. 국내 최대 규모의 대나무 숲 정원인 십리대숲이 약 4km에 걸쳐 이어지고 계절별로 다양한 꽃을 볼 수 있는 초화단지과 주제정원 등이 조성되어 있다. 햇살이 반짝이는 오후 시간의 대나무 숲을 걷는 것도 근사하지만, 탁 트인 정원 너머로 물드는 해질녘의 풍경은 그야말로 장관이다. 겨울철 태화강에서는 까마귀 떼가 하늘을 새까맣게 뒤덮는 놀라운 장면도 목격할 수 있다. 해가 지고 은하수 정원에 불이 켜지면 낮과는 또 다른 야간 볼거리가 펼쳐진다. 대나무 곳곳의 불빛들이 마치 반딧불이 반짝이는 듯 신비로운 공간으로 채워진다. 도시의 소음에서 잠시 벗어나 겨울밤 태화강의 낭만을 기억 속에 저장한다.

📍 태화강 국가정원 울산광역시 중구 태화강국가정원길 154

해송과 바다 그리고 간절한 염원, 대왕암 공원

울산에서 바다를 빼놓고 여행을 말할 수 있을까. 아름답리 소나무와 기암괴석 해변이 동해의 멋스러움을 더하는 대왕암 공원에 도착했다. 공원 입구에서 출렁다리 매표소까지 가는 길은 1백 년 이상의 세월을 자랑하는 키 큰 소나무들이 숲을 이루고 있다. 바다 가까이 자리한 소나무는 첩첩산중의 솔숲과는 또 다른 감상을 선사한다. 소나무 숲을 지나 출렁다리 위에 오르면 완전히 새로운 장면이 펼쳐진다. 대왕암 출렁다리는 중간 지지대 없이 한 번에 연결되는 방식으로, 그 이름에 걸맞게 다리의 출렁임이 꽤 강하다. 주변으로 펼쳐지는 아름다운 풍경에 출렁다리를 걷는 아찔함이 더해져 여행 중 가장 강렬한 순간으로 기억된다. 이윽고 거대한 바윗덩어리들이 모인 기암 해변이 이어지고, 바위를 기둥 삼아 놓여진 철교를 건너 비로소 대왕암에 발을 디딘다. 이곳에 깃든 웅망한 기상을 떠올리며 새로운 한 해를 담대하게 맞이해 본다.

📍 대왕암 공원 울산광역시 동구 일산동 산907



2



3



4

전망대 360° 통유리 너머로 펼쳐지는 울산대교

울산의 매력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곳. 울산대교 전망대로 향한다. 울산대교가 개통하면서 남구에서 동구로의 이동시간이 기존보다 절반 이상 단축되었다고 하니, 바다 위로 이어진 대교의 웅장함이 무척이나 기대됐다. 전망대 1층에는 울산의 주요 명소를 모티브로 제작된 엽서, 인형, 향초 등의 기프트숍이 있고 VR 체험관과 카페 및 매점을 이용할 수 있다. 날씨가 괜찮다면 2층 야외 테라스에서 잠깐 걸으며 맑고 상쾌한 바람을 즐겨도 좋다. 전망대의 본격적인 관람은 3층에서 이뤄진다. 360° 통유리 너머로 석유화학, 자동차, 조선 등 굴직한 산업단지의 풍경과 울산 7대 명산이 어우러지며 다른 도시에서는 쉬이 볼 수 없는 특별한 전경이 눈앞에 펼쳐진다. 유리창 위로 각 위치에 해당하는 장소가 표시되어 있어서 내가 보고 있는 곳이 어디인지 짚어가며 전망을 즐길 수 있다.

📍 울산대교 전망대 울산광역시 동구 봉수로 155-1



5

고래가 넘실대던 항구의 추억, 장생포 고래문화마을

선사시대 장생포의 바다에서는 고래가 뛰어놀았다고 전해진다. 시간이 흘러 한국전쟁을 거쳐 포경업이 전성기를 맞이하기까지 장생포는 '고래의 도시'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2015년 조성된 장생포 고래문화마을은 예전 고래잡이 어촌의 풍경이 고스란히 재현되어 있고 고래광장, 선사시대 고래마당, 수생 식물원 등 다양한 이야기를 담은 관광 콘텐츠를 둘러볼 수 있다. '아이스 케키', '전당포', '양과점' 등 레트로 감성이 듬뿍 담긴 공간에서 그 시절의 풍경을 떠올려 본다. 고래문화마을에서 도보로 10분 정도에 위치한 고래생태체험관에는 실물 고래골격과 포경유물이 전시되어 있다. 고래의 이야기가 좀 더 궁금하다면 웨일즈 판타지움으로 향해보자. 5가지 테마로 구성되어 있는 미디어아트 전시로 고래의 역사와 문화, 자연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다. 📍

📍 장생포 고래문화마을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로 271-1

- 1_ 대왕암 공원
- 2_ 태화강 까마귀 떼
- 3_ 십리대숲 은하수길
- 4_ 울산대교 전망대
- 5_ 장생포 고래문화마을



장갑은 장갑인데 손이 뽕뽕

각색/그림 최승춘
icartoonist@naver.com

2008년 12월 국기계양식
연병장에 모두 집결했습니다!

새로 부임한 이 소위는 당시 포대장인 나의 지시를 누구보다도 잘 이행하는 훌륭한 초급 장교였다.

어디 있지?
주섬 주섬
도대체 가죽장갑을 어디에다가 둔 거야?

오늘 특별히 내가 지휘하는 날인데 늦으면 안 돼...

연천의 겨울은 매우 추우니 행사용 흰색장갑안에 가죽장갑을 꼭 착용하도록!
나=포대장
아!

설마 동상에 걸리겠어?
할 수 없다!
그냥 흰 장갑만 끼고 나가야겠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취임!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손이 시리네.
역시 무의만 장갑이야.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따끔
그런데 손의 감각이 이상해.

혹시...
손이 따끔따끔 하는 것은 동상 증상 일부로...
아! 큰일이다.

사건 예방교육
-동상-

한 번 손상되면 회복이 힘들다. 알겠나? 그러니 꼭 주의하도록!
아! 이걸!

가벼운 동상이었지만 그 이후로 이 소위는 조금만 추워도 손이 금방 시려오는 기왕증 환자가 되어 버렸다.

그리고 현재...
다시 한번 말하지만

괜찮나?
그렇게 말했지만...
진짜입니다.

여러분들은 절대 동상을 가볍게 보지 마라!
알겠나?
아직도 가렵다...
네! 대대장님!

그러니까 그때 내가 소위였을 때, 그날이 국기계양식이 있었...
그때 얼마나 추웠는지...
와!
오!
오!

지금은 중령이 된 이 소위는 추워지는 시기만 되면 본인의 손을 보며 그때를 추억하는 대대장이 되었다고 한다.

-김건우 예비역 육군 소령-

나의 작은 이끼 정원, 테라리엄 만들기

‘식집사’가 되고 싶지만 마음처럼 쉽지 않다. 작은 유리병에 자갈과 흙을 차곡차곡 담고, 촉촉한 이끼를 콕콕 심어주기만 하면 끝인 테라리엄에 주목해 보자. 키우기도 쉽고 아끼자기해서 인테리어용으로도 제격인 나만의 정원 만들기, 테라리엄의 세계로 초대한다.

테라리엄은 뭐까?

‘Terra(흙)’와 ‘Arium(방)’의 합성어인 ‘테라리엄’은 동그란 유리그릇이나 어항 같은 유리병, 입구가 좁은 밀폐용기 등에 작은 식물, 이끼 등을 넣어 재배하는 방법을 뜻한다. 주로 돌, 진흙, 모래, 키우기 쉬운 식물 등을 함께 배치한다.

테라리엄의 장점은?

- ① 쉬운 유지관리: 이끼 테라리엄은 다른 어항이나 식물에 비해 관리가 쉽다. 밀폐된 환경과 최소한의 수분 공급으로도 충분히 잘 자란다.
- ② 다양한 식물 키우기: 이끼, 양치류, 다육식물, 공중식물 등 작은 열대식물과 독특한 모양의 식물 등을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키울 수 있다.
- ③ 실내공기질 개선: 신선한 산소 공급으로 미세먼지 케어와 실내 공기 정화에도 도움을 준다.



테라리엄 만들기 재료 탐구!

유리용기, 식물, 테라리엄 바닥재(숯, 분갈이흙, 생명토, 소일 등), 장식용품(돌, 자갈, 조개껍데기 등), 핀셋, 분무기 등



내추럴팻

테라리엄을 처음 만들 때 참고하면 좋을 영상이다. 유리병 고르기부터 흙 깔기, 진흙 바르기, 자갈 배치, 종류별 이끼 심기 등 테라리엄 A to Z를 만나보자!



한뼘수조

장인은 재료를 탓하지 않는 법! 최소한의 재료로 테라리엄을 만들어보자. 이 영상과 함께라면 재활용할 수 있는 유리병과 화산석, 비단 이끼 한 종류로도 근사한 테라리엄이 완성된다.



그랜트의 감성

내가 만든 아끼자기한 테라리엄,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 키우기는 쉽지만 방치는 금물이다. 습도를 지키는 방법이나 통풍, 분무 주기 등 자세한 설명을 들 수 있다.



독파퀴즈 QUIZ

11월호 42p에 소개된 SK NEW SCHOOL 신입생 모집 내용이 아닌 것은?

- ① 제대군인 우대 ② 교육비 전액 무료 ③ 생활·주거 장학금 지원 ④ 전공자만 가능

※ 12월 20일까지 정답과 이름, 주소, 연락처를 리:스펙 제대군인 담당자 이메일(seung29@korea.kr)로 보내주시거나 웹진(http://vnet-magazine.kr)에서 직접 참여해 주세요.(당첨 결과 문자 통지)

2023년 11월호 독자퀴즈 당첨자

김나영(서울 마포), 이용현(서울 양천),
이경복(경기 동두천), 하태환(제주 제주)
이금남(부산 수영),

※ 당첨되신 분께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 소정의 상금을 보내드립니다.

※ 11월호 정답 ① 오디오북 내레이터

평화를 위해 목숨을 건 진격 국민을 구하기 위한 희생 자랑스런 이름을 기억하다



대한민국 육군 대위(최종 계급 준장) 이대용
1925. 11. 20. - 2017. 11. 14.

※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www.mpva.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대용 육군 대위는 제6사단 7연대 1중대장으로 1950년 6월 25일부터 28일까지 제2연대 대전차포 중대 제2소대와 함께 강원도 춘천전투에서 북한군 2개 중대를 격전 끝에 저지했고, 경상북도 낙동강 전투, 강원도 화천 전투 등 수많은 전투에서 공을 세운 전쟁영웅이다. 1950년 10월 26일 국군의 선봉부대로 압록강변 초산까지 진격했고, 그의 부대원들이 통일외교위원을 담아 김 언덕 높이 태극기를 꽂았다. 그러나 중공군의 개입으로 10월 28일 철수 명령이 떨어졌고 그는 부하들을 이끌고 수많은 교전 끝에 남쪽으로 철수하는 데 성공하였다. 1975년 주월 한국 대사관 공사로 교민 구출에 최선을 다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군인이자 외교관으로 활약한 그에게 충무무공훈장, 화랑무공훈장 등을 수훈했다.